



보건관리전문기관 관계자 여러분! 새롭게 도약하는 한해가 됩시다!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 회장 노재훈

전국의 보건관리전문기관 관계자 여러분! 희망찬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닭의 해,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보건관리전문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구의역 지하철 스크린도어 공사 중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직원이 끼어 숨진 사고, 휴대폰 하청업체 작업자가 메탄올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고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여 메탄올 중독으로 근로자가 실명한 사건 등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의식과 관련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책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해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길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건강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보건관리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관리전문기관제도는 1970년대에 대한산업보건협회 초대회장이신 최영태 박사님께서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보건관리제도로부터 출발하였으며, 199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장 보건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보건관리전문기관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 관계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의 2017년 중점사업은 1)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표준업무와 정보관리 연수교육 실시 2) 보건관리전문기관종사자 법정직무교육과정 개발 3) 제8차 한·일 협력 PAOT-OSH 프로그램 연수교육 실시 4) 보건관리전문기관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5) 사업장에 기업건강증진지수 확대 보급 등을 추진하여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의 실무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보건관리전문기관종사자 법정직무교육과정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무중심으로 개발하고, 2009년부터 매년 한국-일본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는 PAOT-OSH(참여적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리스크 개선활동 훈련) 프로그램 연수교육을 '액션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직무스트레스관리'를 주제로 인천근로자건강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17년 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국의 보건관리전문기관들이 모두 회원기관으로 가입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산업보건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와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보건관리전문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